



日, 전자렌지 즉석식품 인기 컵 식품 시장규모 약 3백억엔

추운 겨울 바쁜 샐러리맨들을 중심으로 전자렌지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즉석 파스타, 그라탕 판매가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하게 전자렌지에서 편하게 데워 먹기만 하면 된다는 이미지에서 탈피해 다양한 특징으로 소비자들의 다양한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컵라면을 최초로 개발한 일본 닛신 식품의 제품 'Spa 王'이 가장 큰 히트를 기록하고 있다.

스파왕의 히트비결(시장점유율 49%)은 컵라면과 같은 형식으로 조리할 수 있는데다 이탈리

안 식당에서 맛볼 수 있는 스파게티가 아닌 파스타 전문점이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편하게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맛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둔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자렌지용 파스타는 컵라면과는 달리 차별화 제품을 만들기 용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카르보나라의 경우 전자렌지 조리 시 직접 치즈를 구운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 마치 그라탕과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고, 크림 파스타의 경우 우유를 가미해 스투풍으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전자렌지에 조리하니가 맛있다'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전자렌지에 조리하는 음식은 맛이 없다는 선입견에서 탈피하도록 광고전략을 활용했다.

약 3천7백억 엔 규모로 추산되는 컵라면시장에서 30%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한 닛신 식품에



▲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전자렌지 즉석식품

고작 아직 수십억 엔 규모에 불과한 전자렌지용 파스타 제품시장은 크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닛신 식품은 이러한 잠재시장의 성장가능성을 놓치지 않았다.

이에 관해 닛신식품의 브랜드 매니저는 시장이 좀 더 성장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인내를 가지고 꾸준하게 제품개발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스파왕 제품은 기존 컵라면을 주로 먹는 고객층을 겨냥함과 동시에 컵라면은 싫고 뭔가 다른 것을 먹고 싶어하는 소비자의 취향을 절묘하게 포착해 성공한 제품이다.

그라탕과 스튜 이미지를 차용해 전자렌지에 데워먹는 싸구려 인스턴트음식 대신 차별화된 고급 이미지를 창출한 것도 또 다른 성공요인이며, 우유를 첨가해 전자렌지에 데울 수 있게 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관심을 제품에 반영한 것도 주목할 만한 컨셉트이다. 실제로 진열매장에는 우유가 비치된 코너 옆에 스파왕을 함께 진열해

판매점 입장에서도 평균판매단가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독신 남성의 이미지가 강한 컵라면 시장이 커버하지 못한 일하는 20~40대 여성을 인스턴트제품 타겟으로 한 것이 효과적이었다.

한편 일본 컵 식품 시장규모는 약 3백억엔 추정되고 있다. 가볍고 편리한 컵 식품은 변함없이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상품으로, 샐러리맨과 직장 여성의 점심식사, 수험생의 야식 등으로 애용되고 있다.

메이커측에서도 일시적인 급속한 시장확대는 보이지 않고 있으나 꾸준한 수요가 있는 견실한 시장이기에 이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제품 투입으로 더욱 더 소비자 개척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편의점에서는 이미 없어서는 안되는 상품으로서 여러 가지 색으로 진열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내용물이 충실함과 동시에 양이 풍부한 제품을 선호하고 있어 각 메이커에서도 이러한 상품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볼 때 작년 일본 신제품 중에는 누룽지와 밥 관련 상품이 눈에 띄는데, 내용물의 다양화가 컵 식품을 신장시켰다고 볼 수 있다.

EU, 수입제품 탄소관세 거론

법적 구속력 협약 올해 말 멕시코시티 개최 예정

코펜하겐 기후회담이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자, 엄격한 기후변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관



세(carbon tariff)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을 필두로 점차 EU 내 다 시 거론되기 시작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 7~18일 1백92개국의 참여 가운데 개최된 코펜하겐 UN 기후회담은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국제협약 도출을 목표로 했으나, 일부 국가들의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그쳤다. 당초 EU는 국제회담을 통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가별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이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은 2010년 말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될 회담에서 다시 협의될 예정이다.

탄소관세는 지난해 7월 EU 환경장관 이사회에서 처음 거론됐으나,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사르코지 대통령은 최근 다시 탄소관세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환경기준을 지키지 못한 상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유럽 국경에서 이런 제품의 기후세(climate tax)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U집행위는 어떤 국제협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탄소관세 부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며, 2010년 말 멕시코시티 회의에서 구속력 있는 협정을 도출하는데 우선권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펜하겐 기후회담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이 역외 경쟁자에게서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탄소관세를 재거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럽 싱크탱크 중 하나인 Centre for European Reform의 수석 경제학자 Mr. Simon Tilford는 경제회복 전망 불투명, 유로화

강세, 주요 국가들의 탄소배출 억제 목표 미흡 등을 고려할 때 EU에서 탄소관세 부과가 거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Mr. Tilford는 탄소관세 주장 근거를 이해할 수 있지만, 탄소관세는 반드시 다른 국가에서 보복조치를 일으킬 것이며 전반적인 국제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탄소관세보다는 탄소배출을 효율적으로 줄인 산업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Mr. Tilford는 탄소배출 산업의 해외유출(carbon leakage) 가능성을 보다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보상할 역내 산업 보호책의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다.

한편, 모든 전문가가 탄소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정책 연구센터(Centre for European Policy Studies)의 경제정책 부장인 Mr. Daniel Gros는 개도국 제품에 탄소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Mr. Daniel Gros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탄소관세를 거론할 때 일반적으로 경쟁력만 고려하고 복지 문제를 소홀히 여기는데, 약간의 탄소관세를 부과해 해외생산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탄소관세 수익을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개도국에 지원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만간 발표될 EU 집행위의 코펜하겐 기후회담 협상 결과 보고서에 따라 EU의 중기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를 놓고 논란이 가열될 가능성이 있다.

EU는 다른 선진국들이 같은 수준의 배출가스 억제 목표치를 제시한다면 EU측은 2020년까지

의 배출가스 감소 목표를 20%에서 30%로 상향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코펜하겐 기후회담의 실패로 이러한 EU의 기본 입장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중동부 유럽국가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같은 경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영국이나 북구 회원국들은 여전히 EU가 최고 수준의 배출가스 억제 목표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코펜하겐 UN 기후회담에 참가했던 모든 협상국들은 지난 달 31일까지 각기 자국의 배출가스 억제 목표치를 제시했다.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려 했던 국내 탄소세 법안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정당치 못하고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판결을 받아 시행이 어렵게 된 상황이다.

프랑스는 지난해 9월 배출된 이산화탄소 톤당 17유로의 탄소세 부과 법안을 상정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헌법재판소는 93%에 달하는 온실가스 배출기업이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산업계보다는 가계에 부담을 주는 부당한 법안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프랑스정부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1월 20일까지 수정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벨기에, 유럽 최적 물류유통 입지
물류 인력 노하우 월 등

C&W가 지난 해 12월에 발표한 '유럽 물류 및 유통 최적입지 지역' 보고서에서 벨기에가 여전히 유럽물류에서 최고의 입지임을 입증했다.

지역별 순위에서 벨기에의 Liege가 1위로 선정됐으나, 2020년에는 벨기에 내 Hainaut에 선두 자리를 내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컨설팅사인 Cushman&Wakefield(이하 C&W)는 물류부문에서 가장 매력적인 국가 및 지역 순위를 2004년부터 2년마다 발간했으며, 매회 벨기에가 최고의 물류입지를 갖춘 나라로 선정됐다.

세부지역별 리포트에서는 '04, '06년에 벨기에의 Limbourg(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에 속하며 독일에 근접)가 1위 자리를 지켰으나, '09년에는 Liege(벨기에 왈로니아 지역에 속하며 독일에 근접)에 그 자리를 내줬으며 북부 프랑스 Pas-deCalais 지역과 알자스 지역도 물류입지매력도 상승을 보였다.

C&W는 투자자들의 주요관심사에 따라 아래 기준에 근거해 물류입지선호도를 평가하고 있다. 지난 해 보고서에서는 2004, 2006년과 비교해 노동력(가용노동력, 노동생산성)의 비중을 높였는데(9%), 이는 2007, 2008년을 거치며 가용노동력 문제가 점점 중요하게 대두됐기 때문이다.

벨기에의 경쟁력은 2004, 2006년 결과와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유럽 주요 소비시장으로서의 탁월한 접근성과 다양한 수송망들의 뛰어난 통합성에 있다. 이 점에서는 화물수송에 있어서 주요 항구와의 복합수송 연결망의 중요성(즉 현재 진행 중이거나 착공예정인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들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벨기에의 경쟁력으로 물류인력의 노하우 및 다양한 외국어 구사면에서 노동력의 품질과 생산성을 꼽을 수 있다. 더불어 비용면에서도 벨기에가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네덜란드에



서 m²당 임차료가 60유로 이상임에 비해(예외 : m²당 50유로인 Venlo지역), 벨기에는 플랑드르의 Brabant 지방을 제외하고는 좋은 입지의 창고 임차료가 m²당 50유로를 넘지 않는다.

한편, 2020년 최고 물류입지지역은 유럽의 물류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해 2016년 중부유럽이 포르투갈 수준의 경제활동과 부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했을 때 Hainaut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美, FDA 비스페놀 유해성 연구 착수 아기 젖병, 컵, 분유캔에 산재

미국 보건성 및 FDA와 기타 보건담당 기관은 3천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함유된 화학물질인 비스페놀(Bisphenol A : BPA)의 인체 건강 유해성에 대한 장 단기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BPA는 플라스틱 용기에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로 아기 젖병, 컵, 분유캔의 내부구조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미 보건성(HHS) 차관 콜(Bill Corr)씨는 최근 동물시험에서 소량의 BPA도 이상 작용을 보여서는 안될 것을 우려해 BPA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고 아동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콜 씨는 BPA가 아동이나 성인에게 해롭다고 입증되지는 않고 있으나 아동은 발육 초기단계에서 BPA가 노출되기 때문에 자세한 관찰이 필

요하다고 말했다.

FDA 부 청 장 샤프스타인 (Joshua Sharfstein) 박사는 FDA는 영양적 장점이 BPA의 위험성을 능가하기 때문에 BPA병 사용을 인정해 왔다. 만일 안전하지 않다면 강력하게 규제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시장에서 아기 젖병의 90%가 BPA를 함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2년 간 발표된 연구보고에서 BPA가 여아들에게 심장병, 성 기능 이상, 암, 당뇨, 과격 행동 및 공격성 유발과 관련이 있다고 하며 이는 발육하고 있는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FDA 함버그(Margaret Hamburg) 박사에 의하면 FDA는 BPA의 건강이상 부작용 우려에 관해 국립 독성프로그램(NTP)에서의 평가에 동의하고 있다. BPA에 대한 2008년 국립 독성 프로그램은 더 많은 자료를 사용했고 BPA에 대한 FDA 보고보다 더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FDA측 보다 비판적 입장이다.

NTP 보고에서 전문가들은 BPA에 노출될 경우 태아, 신생아 및 아동들의 뇌, 행동, 전립선에 이상 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샤프스타인 씨는 FDA는 NTP 평가와 일치하며 NTP가 우려하는 분야에 FDA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더 많은 BPA에 관한 이해와 우려를 근거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FDA가 BPA에 대한 새로운 규제 골격을 구상하고 있으며 입증되면 신속하게 본 화학물질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FDA가 주요 질문에 대답하고 BPA에 대한

불확실한 것을 규명할 때까지 FDA는 사람의 BPA 노출을 줄이는 합리적인 수단을 취해 산업계가 아기 젖병과 컵에서 BPA를 제거하도록 하고 깡통 내부 BPA도 대체하도록 유도하며 기타 식품 깡통 내부에 BPA를 제거하거나 극소화시키는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中, 코카콜라 가격인상 전망 업계 연쇄반응 유발 가능

지난 달 20일부터 베이징에 소재한 연경(燕京)맥주사는 일반 병맥주의 출고가격을 10% 인상, 일반 소매시장에서의 판매가격은 과거의 병당 2위안에서 2.5위안으로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전에 중국내 주요 배럴업체인 모타이사와 우량예사의 가격인상은 이미 선행했다. 가격인상의 바람이 이제는 일반 음료수업계에 까지 불어칠 전망이다. 코카콜라 항저우사도 가격인상을 발표했는데 이로 인해 중국내 음료수업체들의 연이은 가격인상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달 초부터 코카콜라 항저우사는 회사내 전 계열 제품에 대해 가격인상을 단행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탄산음료, 과즙음료, 광천수, 우유음료 등이 포함되며 평균 5%의 가격인상을 실시하게 된다.

이미 가격인상을 발표한 국내 배럴, 맥주업체들, 코카콜라사의 가격인상 이유는 모두 '원가 상승' 때문이다.

연경맥주사는 가격인상원인을 제품생산과정에 소모되는 석탄, 전력, 휘발유, 디젤유 등 에너

지가격과 운송비용 상승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코카콜라사는 원료가 되는 설탕, 포장재 및 기타 원자재의 가격상승때문으로 해석했다.

음료수업계에서는 2009년부터 설탕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인해 가격상승압력이 크다고 밝혔다. 중국내 식품업계의 설탕소모량은 전체 설탕공급량의 3/4를 차지한다. 국내 식품업계 가운데 우유제품, 탄산음료, 과즙음료의 설탕사용량은 식품 설탕사용량의 약 30%, 20%와 20%를 차지한다. 코카콜라사는 제품생산원가 중 설탕의 원가비중이 35%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일부 전문가들은 설탕가격상승이 음료수업계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으며 업체의 가격인상이유는 따로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인민대학 농업과 농촌발전학원의 鄭風田 부원장은 코카콜라 등 국내 업계 거두의 말단시장 제품판매가격과 원료가격상승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이는 이들 기업이 타 업계의 가격인상 행위에 대한 추종행위이라고 분석했다.

코카콜라(중국) 본사의 공공사업 및 홍보부서의 총감은 원료가격인상은 오래전부터 있었으며 회사의 가격인상은 원가상승부분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며 소비자들의 수용능력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코카콜라의 장저우소재 회사의 제품가격을 인상했지만 베이징, 호남성, 정저우 등 지역소재 회사 측에서는 잠시 가격인상을 하지 않거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업계의 다른 주요기업들인 후이위엔, 퉁이, 와하하 등 음료수업체들은 아직까지 가격인상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